



# “범어 원전 우리말 번역 시급한 과제”

우리가 그동안 익혀 온 불교경전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의 불교경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도에서 다시 말해 범어로 법을 설하셨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육성을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범어 경전의 번역과 읽기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을 이끄는 중심에 초기불전연구원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앙굿따라 니까야> 전 6권을 번역해 낸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담스님을 만났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어떤 경전인가요?

<앙굿따라 니까야>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들을 숫자별로 모은 것입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주제의 숫자가 하나인 것부터 열하나인 것까지 숫자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모두 열한 개의 보관함을 만든 뒤 그 함에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숫자별로 나누어 담은 것이 바로 <앙굿따라 니까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증지부(增支部)라고 직역하였는데 앙가(anga, 支) + 윗따라(uttara, 增) 니까야(nikaya, 部)로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신 뒤에 45년간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뒤 일차결집에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다섯 부분(니까야, 部)으로 나누어서 결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디가 니까야(長部)>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이가 긴 것을 모은 것이고, <맛지마 니까야(中部)>는 그 길이가 중간정도인 것을 모은 것이며, <상윳따 니까야(相應部)>는 주제가 분명한 가르침들을 숫자별로 모은 것이고,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는 숫자별로 모은 것이며, <윳타까 니까야(小部)>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들지 않는 나머지 경들을 모은 것입니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해제를 주해해 주는데, 번역 방향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초기경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듣고 받아 지닌

것이기에 때문에 직계 제자들로부터 비롯된 전통적인 안목을 빌어와 정확하고 심도 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직계 제자들을 비롯한 상좌부의 전통적 견해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주석서 문헌(Athakatha)의 설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주해에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유념한 번역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3000개가 넘는 주해를 달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불전을 이해하는 부동의 증거가 되는 <정정도론>과 <아비담따타 상가하(아비담따 길라잡이)>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미 번역·출간하였으므로 주해에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해는 <앙굿따라 니까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역 용기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 인도를 갈 때의 목적은 진정한 고행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행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다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빠알리 삼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을 한글로 옮기는 것을 저의 고행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부처님

안을 수 없듯이, 뿌리를 모르는 불교는 역사를 아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게 되겠지요.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초기 불전연구원은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지금 열과 성을 다해 빠알리 삼장의 완역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열원은 부처님 원음이 우리의 밑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한국 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립되던 해인 2002년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나침반이 되는 <아비담따타 상가하(아비담따 길라잡이)>를 상·하 두 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쇄가 거의 매진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도론>을 2004년 전3권으로 번역·출간하였고 2006년 초 <디가 니까야>를 전3권으로 번역해 내었는데, 이 불도 모두 재판을 찍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 외 초기불교 수행법을 소개하는 단행본 소책자들을 몇 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상윳따 니까야>를, 후년에 <윳타까 니까야>를 완역·출간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

## ‘앙굿따라 니까야’ 전 6권 2년만에 번역 완료 “부처님 마주하고 가르침 듣는 듯한 기쁨 느껴”

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리라고 역경불사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기경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정도론> 공부 필수라고 생각하여 박사과정에서는 정정도론 복주서인 <마하따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4년 <정정도론>을 완역·출간한 뒤에 <앙굿따라 니까야>를 번역하기 시작하여 2006년 8월 처음으로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고, 2007년 4월 제3권과 제4권을 출간했으며, 이제 다시 제5권과 제6권을 마무리 지어 <앙굿따라 니까야>를 완역·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하는 내내 부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게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든 나날의 연속이긴 했지만 부처님을 마주 대하여 가르침을 듣는 듯한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번역하면서 혹시 저의 부족한 번역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서운 질정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언제 설립됐고 그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거부하고선 나무가 살

아 못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빠알리 삼장 역경불사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9년까지 빠알리 삼장을 모두 완역하고 중요한 주석서들도 번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초기불전을 완역하는 것입니다.

—범어 원전의 이해와 공부에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은 인도분이셨고 그래서 인도어 즉 범어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범어와는 문장이나 문법구조가 전혀 이질적인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의미 전달에 정확성을 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경전이 본격적으로 번역되던 천사오백 년 전의 한자와 지금의 한자, 그것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범어 원전을 읽고 이것을 우리의 언어 문자로 정확하게 직역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 시대정신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의 한국 불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 불교가 이루지 못했던 자주 불교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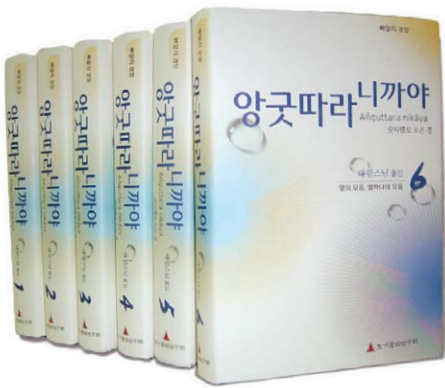
—빠알리 삼장을 번역하는 외에 다른 일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빠알리 삼장을 완역하고 나서는 한역 4아함을 빠알리 4부 니까야와 대조해가면서 정확하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만 불광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서대대학(University of West)에서 요즘 범어불전들 즉 대소승을 망라한 북방불교의 산스크리트 원전들을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 지도법사인 각목 스님이 이를 다운받아서 자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 자료가 정리되면 범어 불전들을 한역대상경과도 비교할 수 있고, 빠

알리 삼장경과도 비교할 수 있어서 이들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한글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라도 이러한 범어 불전들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 되겠지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장차 한글 번역을 감당해볼 생각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2007년 금강승 불무도 동계 템플스테이**

※ 모집인원 : 30명 소수정원제

※ 대상 및 입소자격 : 초등학생, 중학생

- 각 사찰 주지스님 추천자 우선접수 입소
- 각 학교장 및 담임선생님 추천자 우선접수 입소
- 일반 접수일 경우 1차면담 후 입소 통보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14교구 범어사 말사 양산 천성산 금강사 (세계 금강승 불무도 총본원)

※ 일 정 :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 까지(21일간)

※ 참가비 : 42만원

※ 준비물 : 개인세면도구, 편안한 운동복, 운동화, 속옷, 양말, 장갑(범어리장갑 안됨), 필기도구 - 휴대폰, MP3, 현금, 간식 등은 입소 시 맡아보관합니다.

※ 집결장소 :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지하철 노포역) 내 롯데리아 바깥 벤치

☞ 사찰차량 이용

- 자세한 프로그램 및 내용은 템플스테이 메뉴 참조

☞ 접수문의 : 사찰 055)386-2262, 017-569-8607 (단체수련 및 장기수련)

☞ 홈페이지 주소 : www.bulmudo.org 또는 한글주소 [www.불무도.kr]

☞ 국민은행 939701-01-176087 / 예금주 : 홍미숙 (세계금강승불무도)

**금강승 불무도**  
金剛乘佛武道 | www.bulmudo.org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품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범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직지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봉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현재 김봉사 회주 · (前)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품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불교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